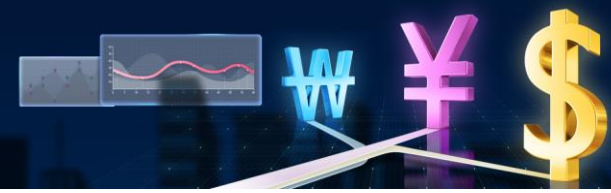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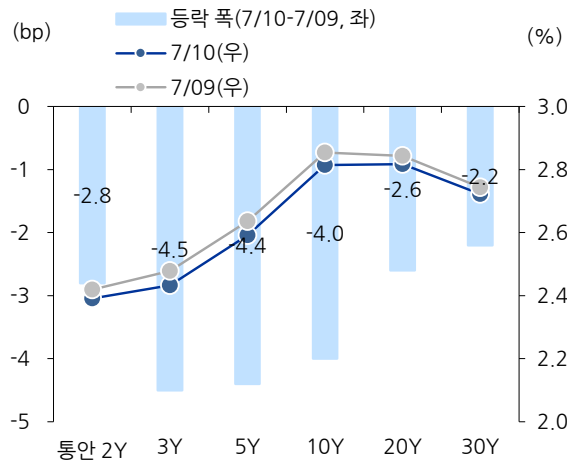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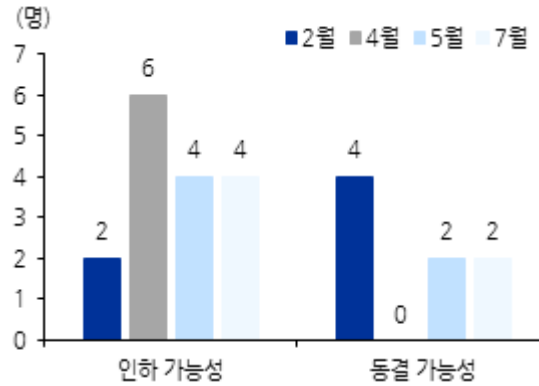
(단위: %,bp, 톱)

	7/10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433%	-4.5	-1.6
	한국 국고채 10년물	2.814%	-4.0	-4.1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8.1	37.6	36.5
	3년 국채 선물(KTB)	107.30	15.0	7.0
	10년 국채선물(KTB)	118.35	44.0	-7.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874%	2.8	8.8
	미국채 10년물	4.352%	1.9	7.2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7.8	48.8	49.4
	독일국채 10년물	2.700%	2.8	12.7
	호주국채 10년물	4.287%	-5.5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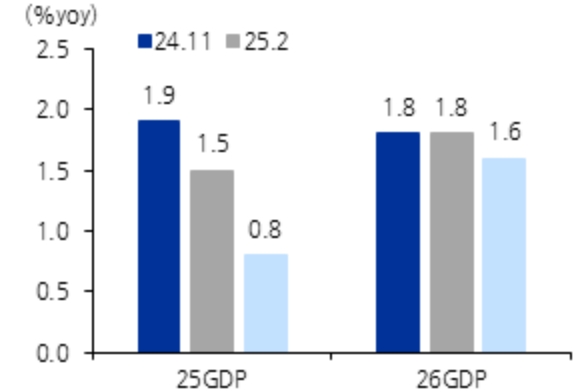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한은 포워드가이던스, 직전 회의와 동일



2차 추경 효과 +0.1%p 포함해도 금년 성장률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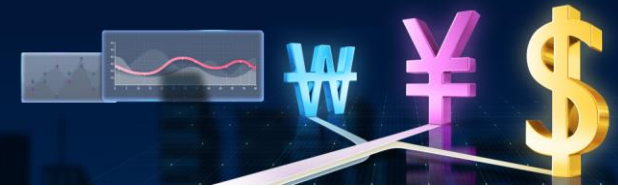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
- 7월 금통위, 예상대로 만장일치 동결 및 포워드 가이던스 4명 인하 주장. 동결 배경은 금융안정.
-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아울러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안만 잡히면 추가 인하 개진할 의사를 표출.
- 금융 불균형 중요하나 성장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 1~2차 추경의 부양 효과를 전부 반영해도 금년 성장률은 0.9%에 불과하다고 평가.
- 대부분 매파 재료는 선반영된 탓에 회의 전후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기조 유지.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 신규,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 전망에도 고용이 아직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금리 부담이 확대.
- 다만 연준 인사의 완화적 발언, 미국채 30년물 입찰 호조 확인 후 금리 상승폭을 일부 반납.
- 월러 이사, 현재 금리는 매우 긴축적이기에 7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그러한 입장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점이 아니라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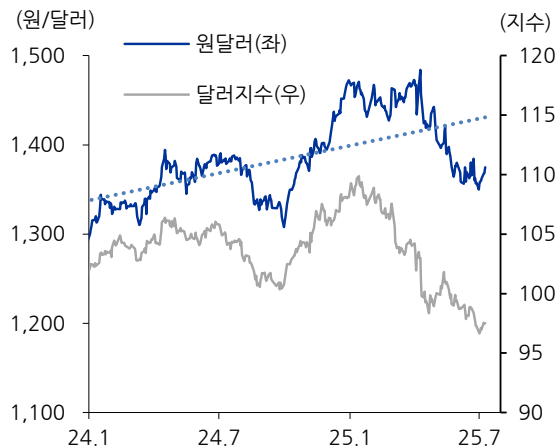


FX & Commodity

(단위: %, \$)

	7/10일	1D	1W	YTD
원/달러	1,370.00	-0.4%	0.8%	-7.0%
달러지수	97.59	0.1%	0.5%	-10.0%
달러/유로	1.170	-0.2%	-0.5%	13.0%
환율 위안/달러(역외)	7.18	-0.1%	0.1%	-2.1%
엔/달러	146.26	-0.0%	0.9%	-6.9%
달러/파운드	1.358	-0.1%	-0.6%	8.5%
헤알/달러	5.53	-0.9%	2.3%	-10.5%
WTI 근월물(\$)	66.57	-2.6%	-1.3%	-7.2%
금 현물(\$)	3,324.19	0.3%	-0.1%	26.7%
구리 3개월물(\$)	9,682.00	0.5%	-2.7%	10.4%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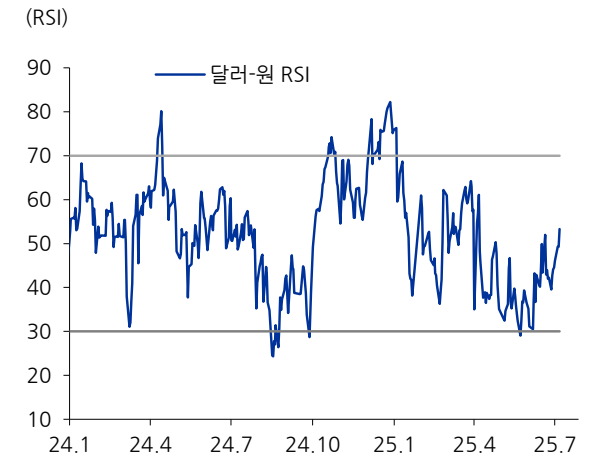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5.00원 하락한 1,370.0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373.90원 마감.
- 간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1,373원 선에서 하락 출발 후 오전 중 1,375원대로 올라섰지만 이내 반락. 오후에는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다 장 막판 빠르게 낙폭을 확대.
- 장중 한은 금통위 있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되었음.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총재 제외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미국 주간 고용지표 소화하며 상승.
-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이 너무 반복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둔감. 달러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상승폭을 키웠음.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7만 건으로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
- 반면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에 나섰다. 월러 이사는 7월 인하를 주장하며 이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해명.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불확실성이 크나, 올해 가을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내년 상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